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들이 동시에 도입된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회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비율도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로 변경되어 보험산업은 새로운 제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을 준비하던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였다. 하지만 IFRS17 시행 시기와 금리 상승기가 우연히 겹치게 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자본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는 제도이므로 회사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전공시 자료를 활용한 2022년 말과 2023년 1분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과 이익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한다.

이후 IFRS17 시대에 적합한 보험회사 성과지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성과지표인 내재가치와 IFRS17 평가요소인 보험계약마진을 비교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회사 재무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품 단위이거나 단순화된 예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승엽(2021)은 국내 대표 보험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상품별 IFRS17 이익 규모를 비교하고 불안정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익 원천에 일관된 수익인식 기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선엽·박종찬(2022)은 IFRS17 회계처리 시 가상의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CSM을 통한 내재가치 공시 등 IFRS17 도입의 영향을 설명한다. 오창수·김경희(2022)는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현금흐름분석모형을 모델링하고 금리확정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현금흐름을 비교하였다.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는 생명보험회사 대표상품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율을 이용하여 이익을 비교하고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 가정 민감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IFRS17 시행 이후는 공시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회사별 손익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한울·이강욱(2023)과 노건엽·전예지(2023)는 보험회사 사전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IFRS4 대비 IFRS17의 자본, 이익 등 변동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선영·채영서(2023)는 보험회사의 2023년 1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IFRS17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K-ICS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한국은행(2023)은 IFRS9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변화와 손익 영향, 보험회사 자본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강승건·우도형(2023)은 재무적 영향을 해약환급금준비금와 예정 대비 실제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IFRS17과 연관된 보험회사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내재가치, 보험계약마진 등 다양한 접근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오창수(2017)는 IFRS17 이후 물량 위주의 KPI가 가치 중심의 KPI로 경영행태의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는 외형 및 물량을 중시하고 내재가치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향후에는 MCEV 등 가치를 반영하는 KPI를 적극 활용하고 물량 등 외형 KPI 비중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W. Yousuf et al.(2021)은 유럽에서는 신계약 수익성 분석을 위해 Solvency Ⅱ 방식의 신계약가치(Value of New Business; VNB)를 활용하였지만 IFRS17 도입으로 CSM을 이용한 신계약 수익성 방식이 도입될 것은 예상하였다. 신계약에 대한 수익성 평가가 CSM을 기대보험료의 현재가치로 나눈 방식(New Business Margin; NBM)을 적용할 수도 있고 IFRS17과 Solvency Ⅱ를 연결하는 자본비용법의 비율로써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노건엽·김석영·손민숙(2021)는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내재가치(EV)를 이용하

여 보험회사 수익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보험산업 필요이익을 추정하고 장기 수익성 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활용한 고금리 보유계약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세중·최원(2022)는 IFRS17 도입으로 수입보험료보다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산업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았으며, 생명보험회사는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는 손해율 및 유지율 예측 정교화를 통해 보험계약마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이 보험회사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는 IFRS17 시행으로 인한 국내외 보험회사 재무 영향을 먼저 검토한다. 이후 IFRS17 시대에 적절한 보험회사 성과지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IFRS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후 제Ⅲ장에서는 자본, 이익 등 보험회사의 재무적 지표 변화를 설명하고 제Ⅳ장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